

勞 動 經 濟 論 集
第 17 卷, 1994. 12. pp. 1 ~ 26
© 韓國 勞 動 經 濟 學 會

製造業 轉職者 및 失業者分析과 勞動供給 政策方向

鄭 寅 樹*

< 目 次 >

- | | |
|--------------------|--------------------------|
| I. 序 論 | III. 製造業 轉職者 및 失業者
分解 |
| II. 勞動市場 現況 및 雇傭構造 | IV. 勞動供給 安定化 方案 |

I. 序 論

우리나라에서 인력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부터이지만 1991년 이후 지난 3년간 경기불황하에 있으면서도 제조업에서의 노동력부족은 줄곧 호소되어 왔다. 섬유·신발산업에서의 사업체 도산과 그에 따른 근로자 실업·전직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여타부문 업종에서는 인력난을 보여왔다. 한편 1994년 1/4분기에는 성장률 8.8%, 실업률 2.3%로서 경기가 과열국면인가 정상국면인가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정도이다. 앞으로 경기활성화가 계속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인력난은 앞으로 그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인력정책 및 노동수급 원활화가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H전자 협력업체 400개에 대한 1994년 상반기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생산인력 부족이라고 답한 회사가 47%에 달하고 다음으로 자금부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현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공급상의 구조변화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노동력 부족의 원인이 산업구조조정상의 수급불일치에 의한 요인이 크다는 점과 직업안정망 및

*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委員

직업훈련의 취약이 이러한 수급불일치에 결정적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정책방향을 장기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노동관계자들이나 사회일반에서는 근로자의 3D기피 풍조에 기인한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이탈을 노동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일반의 인식에 대하여 통계청의 고용구조통계 조사상의 자료를 분석을 통하여 현 노동시장의 특색을 살펴보고 나아가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은 근로자의 3D기피 풍조에 의한다기보다는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수급상의 불일치에 의한 요인이 무엇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조업에서 1년전 근로하던 근로자가 여타산업으로의 전직 또는 실업상태로 변화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통계청에서 3년마다 발표하는 고용구조조사에는 1년전의 근로자 취업상태에 관한 조사가 있다. 이 조사를 이용하여 1년전 제조업 취업자의 1년후 현재 실업자 및 다른 산업으로의 전직빈도수를 구함으로써 제조업 근로자의 산업별 특성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구조조사(1992년)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에서 전통적 서비스·유흥향락산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은 도산 및 쇠퇴경향에 있는 섬유·의복산업(32산업)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규모 자동화 투자 및 기술변화가 나타나는 조립금속·기계산업(38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실업도 위의 두 가지 업종 및 사업체수가 감소한 화학·석유업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 발견은 관련학자들이나 일반적 노동관계자들이 통상적으로 주장해 오던 근로자들의 3D기피 현상-작업환경 열악(Dirty), 힘든 노동(Difficulty), 위험한 작업(Dangerous)-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제조업에서 전통적 유흥향락산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전직하고 있다고 하는 일반적 통설이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실직 및 전직의 빈도가 높은 산업이 일반적으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종이·인쇄·출판, 화학 또는 철강산업을 포함한 제1차금속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도산 및 자동화 등 산업구조변화가 급격하다고 보이는 섬유·의복, 조립금속·기계산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실직 및 전직의 원인이 3D기피라기보다는 도산 및 자동화·기술화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현상이 더 크며 유흥음식점으로의 전직은 근로자의 어쩔 수 없는 전직의 성격이 크다. 1992년 통계청 고용구조조사에서 나타난 실업의 이유에서는 '폐업·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등의 산업구조조정상의 원인이 크게 나타나며, 전직 이유에서도 3D기피 문항인 '작업시간·환경이 좋지 않아서'보다는 이들 앞의 이유에 더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3년 9월경의 근로자 및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업 및 인력부족의 이유로서 '취업기회 부족', '정보를 몰라서'에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작업환경 열악' 등 3D부문에는 응

답비율이 낮다. 한편 실업자 중 직업훈련을 이수받지 않은 자가 90%라는 사실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직업정보 및 성장업종으로의 직업훈련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고용구조를 개관하고 제Ⅲ장에서는 제조업으로부터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이 일어나는 중분류산업상의 특색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제Ⅱ장 및 제Ⅲ장의 논점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제Ⅲ장 제1절에서는 제조업으로부터의 전직 일반에 대한 분석을, 제2절에서는 논점의 핵심인 전직 실업분석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특색을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실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2절의 보완자료로서 제시한다.

Ⅱ. 勞動市場 現況 및 雇傭構造

1. 勞動市場 現況

먼저 제조업에서의 노동시장 현황을 보면 첫째, 인력난은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심각하다. 1993년의 경우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4.4%에 불과하나 생산직 부족은 6.0%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 부족이 8.2%로 나타나 매우 심각하다(표 1 참조).

둘째, 기능정도별로 볼 때 반숙련공 및 미숙련·단순공의 부족이 심각하다. 1993년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반숙련공 8.6%, 미숙련공 17%의 부족률로서 지도기능자 및 숙련기능자 부족률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셋째, 기능공 및 기술자의 부족도 자동화·기술집약화에 따라 차츰 강하게 노정되고 있다. 업체의 출장조사에 의하면 기능인력 부족이 앞으로 계속 예상되어 자동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술자·숙련기능공의 충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도 공장자동화 추진이 300인 이하 업체에서 6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2 참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품의 품질과 작업능률에 있어서 근로자의 기능수준에 대한 의존도가 '대부분의 것이 기능수준에 좌우된다'에 답한 것이 55%, '절반 정도 차지한다'가 35%로서 근로자의 기능수준 의존도는 90.0%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자동화 추진에 따른 직종별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및 기능직에 있어서는 응답 600업체 중 50% 정도가 '고용감소'에, 또한 50% 정도가 '고용불변'에 응답하고 있어 자동화가 추진됨에 따라 단순노무·기능직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제조업 생산관련직 기능정도별 부족률

(단위 : %)

규 모	기능정도	1992	1993
제조업 전체	지도기능자	1.52	1.64
	숙련기능자	6.12	4.47
	반숙련기능자	6.79	6.07
	미숙련기능자	11.68	15.02
중소규모	지도기능자	2.05	2.40
	숙련기능자	8.95	6.78
	반숙련기능자	9.83	8.63
	미숙련기능자	12.35	17.11
대 규모	지도기능자	0.58	0.51
	숙련기능자	2.37	1.54
	반숙련기능자	3.15	2.40
	미숙련기능자	10.67	11.31

자료 : 노동부, 「고용전망조사보고서」, 각년도에서 작성.

<표 2> 종업원규모별 자동화 여부

(단위 : %)

	전 체	29인 이하	3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예	60.5	43.0	58.1	75.2	74.5	100.0
아니오	39.5	57.0	41.9	24.8	25.5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중소기업 실태조사」, 1993. 9.

2. 雇傭構造의 變化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용구조의 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간단히 분석해 보면 첫째, 노동수요 측면으로는 산업구조 변화의 진전이 매우 빠르고 자동화·기술고도화·기계화가 빨리 진전되고 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산업의 진전이 빠른데 1982년의 제조업 근로자 비율이 61%에서 1992년에는 50%로 격감하고 있으며, 제조업 내에서도 급격한 임금상승 등에 의한 노동집약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도산·쇠퇴와 기계, 전자, 중공업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업종간의 노동수요구조 변화를 크게 일게 하고 있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을 볼 때 인구구조에서 청소년층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고학력화 현상을 보여 생산직으로의 공급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연령계층별로 볼 때 청소년층(15~24세) 인구가 1990년 이후 절대수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

소년의 대학학력 보편화 현상이 지난 10년간 두드러져 생산직 입직률을 낮추고 있다.

가. 수요구조의 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제조업보다는 제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빠르다. 근로자수에서도 제조업이 전체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2년 61%에서 1992년에는 50%로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는 섬유·신발산업 등 단순노동집약적산업의 퇴조와 자동차·전자 등 중공업 등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2) 기술고도화·자동화·기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우선 제조업 근로자 중 생산직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① 임금 인상 및 경제환경 변화에 따르는 노동집약산업의 퇴조와 ②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직 단순인력수요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제조업 생산직 감소추세는 1982년 78%에서 1990년 70.3%, 1992년에 65.7%로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자동화 및 기술고급화를 기능인력면에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1992년의 지도기능자 비율이 11%, 숙련기능자 52.8%, 반숙련자 25%, 미숙련기능자 11.3%로서 1982년보다 지도기능자 비율이 5% 가량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지도기능자 비율이 12.1%로서 중소기업보다 빠르게 고급기술 및 자동화 투자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생산직에서의 여성근로자 비율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기업에서의 여성근로자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확연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982년도 대규모 여성생산직 비율 53.2%에서 1992년에는 39.6%로 낮아졌는데 비하여 중소기업에서는 47%에서 42.5%로 낮아졌다. 이는 여성 단순노동이 심하던 섬유·신발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도산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중소기업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부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3> 제조업 직종별 근로자수 추이

(단위 : 천명)

	1982	1987	1990	1992
전 체	1,737(100)	2,179(100)	2,001(100)	2,565(100)
생산직	1,358(78.2)	1,645(75.5)	1,407(70.3)	1,685(65.7)
비생산직	379(21.8)	533(24.5)	594(29.7)	880(34.3)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각호.

<표 4> 제조업 생산직 규모별·성별 근로자 추이

(단위 : 천명)

	1982	1987	1990	1992
전 체	1,358	1,645	1,407	1,685
중소규모 (여성%)	640(47.1) (47.0)	820(49.8) (43.7)	678(48.2) (42.1)	951(56.4) (42.5)
대규모 (여성%)	718(52.9) (53.2)	825(50.2) (49.7)	729(51.8) (43.8)	734(43.6) (39.6)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각호.

나. 노동공급구조의 변화

1) 인구구조상 청소년층의 공급률 감소

연령계층별로 노동력 구성을 보면, 청소년층인 15~24세 인구가 1990년 이후 절대수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반숙련·미숙련공의 주된 공급원천인 청소년층의 공급감소가 노동력 부족을 일으키고 있다.

2) 고학력화 현상

진학을 증가와 고학력화 현상은 지난 10년간 두드러져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고학력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경제성장, 졸업정원제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청소년의 대학학력 보편화 현상이 생산직 입직률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표 5> 청소년층 인구

(단위 : 천명)

	총인구	청소년인구(15~24세)	
			%
1980	38,124	8,613	22.6
1985	40,806	8,682	21.3
1990	42,869	8,753	20.4
1995	44,851	8,378	18.7
2000	46,789	7,721	16.5
2005	48,434	7,017	14.5
2010	49,683	6,493	13.1
2021	50,586	6,413	12.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0~2021년), 1991. 4.

Ⅲ. 製造業 轉職者 및 失業者 分解

1. 轉職者 分解

고용구조통계조사(1992년)에는 1년전 제조업에서 일하다 현재에는 여타산업 및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조사가 나타나 있다. 1년전 제조업에 근로한 15세 이상의 근로자 399만 8천명중 현재 경제활동인구에 있는 자가 385만 9천명이고, 이 중 실업자가 74천명, 취업자가 378만 5천명이다. 그 취업자 중 제조업에 그대로 남아 있는 자가 359만 9천명(90.0%), 前職 제조업으로부터 1년후 轉職, 失業 및 비경제활동으로 나타나는 근로자는 전직이 17만 5천명(4.4%), 실업 7만 4천명(1.9%), 비경활 14만명(3.5%)인데, 전직 업종으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만 7천명(1.9%), 기타서비스업 6만 4천명(1.6%), 건설업으로 3만 4천명(0.85%)이다. 한편 1989년의 경우에는 전직이 10만 5천명(2.6%), 실업이 5만 5천명(1.4%), 비경활이 9만 2천명(2.3%)이며 전직자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만 1천명(1.3%), 기타서비스업 2만명(0.5%), 건설업 1만 4천명(0.35%)이다. 1992년과 1989년을 비교하면 轉職 및 失業의 비율이 1992년도에 조금 높아졌는데 내용적으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나 건설업보다는 기타서비스업으로의 전직 비율이 높아졌다.

<표 6> 산업별 1년전 제조업 전직자 수

(단위 : %, 명)

	제조업
- 15세 이상 인구	3,998,000(100.0)
- 경제활동인구	3,859,000(96.5)
- 비경제활동인구	140,000(3.5)
- 취업인구	3,785,000(94.7)
· 농림수산업	9,000(0.02)
· 광업	1,000(0.003)
· 제조업	3,599,000(90.0)
· 건설업	34,000(0.85)
· 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	59,352(1.5)
· 음식숙박업	17,648*(0.5)
· 기타서비스업	64,000(1.6)
- 실업자	74,000(1.9)

주 : 1) ()은 15세 이상 인구를 100으로 놓고 나타낸 비율.

2) *는 轉職자 중 여성의 비율이 40%를 넘는 곳.

자료 : 통계청, 「1992년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테이프.

한편 1년전 제조업에서 근무했던 전직자수를 현재 산업종사자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비율은 상당하다. 특히 음식숙박업에 있어서는 제조업으로부터의 전직자의 비율이 현재 음식숙박업 총종사자의 11.7%나 되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전직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의 그 비율은 2% 정도이다(표 7 참조).

1년전 제조업에서 현재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전직한 근로자를 출신 제조업 분류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8, 9 참조).

건설업으로의 전직은 조립금속(38)산업에서 1만 3천명, 섬유(32)산업에서 7천명 정도이지만 여타산업에서는 1~2천명 수준으로 총 3만 4천명 정도이다. 이는 1년전 전체제조업 근로자수 399만명의 1%에는 못미치지만 절대수에서는 상당한 숫자이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자는 7만 7천명 수준인데, 이 중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5만 9천명, 음식·숙박업으로 1만 7천명이 전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의 전직자 수(59천명)는 조립금속(38)산업에서 2만 3천명, 섬유·의복산업에서 1만 5천명 순으로 나타나는데, 각 산업에서의 전직근로자 비율상으로는 섬유·의복산업에서의 전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섬유·의복에서의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의 전직 숫자 중 여성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어 섬유·의복산업에서의 여성근로자 전직비율이 매우 높다. 한편,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자수(17천명)는 섬유·의복산업(32)에서 6천 7백명, 조립금속(38)산업에서 4천 5백명으로 섬유·의복산업에서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이 가장 높으며 특히 이 산업과 음식료품제조업(31)에서 음식·숙박으로의 전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

<표 7> 산업별 1년전 제조업 전직자 비율

(단위 : 명, %)

	제조업
· 건설업	34,000(2.2)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9,352(1.8)
· 음식숙박업	17,648(11.7*)
· 제조업 stay	3,599,000(87.1)

주 : 1) () 안은 1년전 제조업종사자 중 현재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현재 각 산업근로자 총수로 나타낸 비율.

2) *는 전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40%를 넘는 곳.

자료 : 통계청, 「1992년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및 테이프.

<표 8> 1년전 제조업에서 건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자 수

(단위 : 명)

	전 체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가구	종이 인쇄	화학 석유	비금속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기타
건설업	2.20	0.16	0.45	0.10	0.07	0.18	0.14	0.09	0.87	0.1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1.82	0.14	0.47*	0.04	0.10	0.12	0.08	0.05	0.70	0.11
음식숙박업	11.67*	1.24*	4.42*	0.06	0.18*	1.06	0.29*	0.18	3.30	0.94*
stay	3,599,000	334,347	776,304	81,697	187,838	295,868	182,829	125,965	1,378,779	235,015

주 : *는 전직자 중 여성의 비율이 40%를 넘는 곳.

자료 : 통계청, 「1992년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및 테이프.

<표 9> 1년전 제조업에서 건설업·도소매업·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추이

(단위 : %)

	전 체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가구	종이 인쇄	화학 석유	비금속	제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	기타
건설업	2.20	0.16	0.45	0.10	0.07	0.18	0.14	0.09	0.87	0.1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1.82	0.14	0.47*	0.04	0.10	0.12	0.08	0.05	0.70	0.11
음식숙박업	11.67*	1.24*	4.42*	0.06	0.18*	1.06	0.29*	0.18	3.30	0.94*

주 : 각 비율은 제조업 중분류산업에서 轉職한 근로자수 / 각 산업(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현재 근로자수

자료 : 통계청, 「1992년 고용구조통계조사 보고서」 및 테이프.

2. 轉職·失業分析 -3D忌避: 産業構造變化

轉職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991, 1992년 기간중에는 신도시 주택건설 수요로 인한 건설인력의 부족이 건설노임을 상승시켜 제조업에서 건설업으로의 전직이 제조업 단순기능직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었다는 점과, 3D현상과 함께 사회의 소비풍조로 인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호황으로 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이 제조업 중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인력부족을 야기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경제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호·불황산업의 격변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는 전직 분석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심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형태를 살펴본다.

<표 10>은 1년전에 제조업에서 종사하던 근로자의 1992년 현재 전직 및 실업한 경우를 제조업 중분류산업별로 작성한 것이다. <표 10>은 <참고표 1>에서 중분류산업별 근로자수를 규모조정한 것인데 <참고표 1>을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표 1>의 첫번째 및 두번째 행은 1년전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던 근로자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전직한 7만 7천명과 실업하게 된 10만 2천명을 100으로 하여 각 중분류제조업으로부터 노동이동한 숫자의 비율을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세번째 행은 제조업 중분류산업별 근로자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분류산업별 규모(Scale)를 감안하지 않고 전직 실업자 절대수만을 살펴본 그 산업에서의 전직 및 실업확률은 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표 10>은 그런 점에서 <참고표 1>로부터 각 중분류산업당 전직 및 실업자규모 비중을 다시 각 산업의 근로자 규모비율로 나눈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직 및 실업이 중분류상의 산업별 값은 기본값 1(unit)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여타산업에 비하여 전직 또는 실업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음을 뜻하고, 1보다 작으면 낮고, 1이면 보통 정도의 확률

<표 10> 前職 제조업 근로자의 轉職·失業 비율

(중분류산업별 근로자수 scale 감안한 경우)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가구	종이 인쇄	화학 석유	비금속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기타
전 직 ¹⁾	0.89	1.14	1.00 2.02 ²⁾	0.77	0.97	0.87	0.81	1.03	0.89
실업 ³⁾	0.63	0.92	0.75	0.98	1.19	0.98	0.97	1.20	0.19
사업체수증감률(%)	0.7	-4.9	6.0	-0.8	-2.2	12.3	19.2	2.6 (-29.3) ⁴⁾	13.2
여성비율(%)	41.8	59.2	24.0	27.7	26.3	21.8	9.9	26.4 (48.1) ⁵⁾	39.8

주: 轉職·失業에 나타나는 제조업 중분류상의 각 숫자는 <참고표 1>상의 전직, 실업의 % 비율을 산업별 근로자 비율로 나누어 scale을 조정한 숫자임. 예를 들면, 섬유·의복의 轉職 1.14는 <참고표 1>상의 28.7/25.8한 것임. 따라서 단위는 없으며 1을 기준으로 산업별로 상대적 비교해야 함.

1) 제조업에서 1년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자: 전직자수 77,000명.

2) 건설업으로의 전직자 상대비율.

3) 제조업에서 1년후 실업자가 된 근로자: 실업자수 102,000명.

4) ()은 전기기계, 조립금속(381산업) 사업체수 감소: -1.7%

5) ()은 전기기계산업의 여성비율, 조립금속의 경우 여성비율 81%, 전 제조업 평균 여성 비율은 34.7%.

자료: 통계청, 「'92 고용구조통계」 테이프 및 「고용구조통계조사」, 1989, 1993년.

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 전직과 실업이 사업체수의 변화, 여성근로자비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전직, 실업, 사업체수의 변화, 여성비율을 함께 나타내는 도표를 작성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 중분류산업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에서 제조업 중분류별 轉職비율을 보면 섬유·의복산업이 1.14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조립금속·기계산업의 비율이 1.03으로서 여타 중분류 제조업에 비하여 높다. 섬유·의복산업의 전직비율은 섬유·의복산업 근로자 전체의 3.7%로서 제조업 중분류 중 가장 높다. 섬유·의복의 전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체수의 격감(-4.9%)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표 11 참조). 섬유·의복산업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도산 및 감량경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상의 문제 때문에 전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섬유·의복산업의 여성비율은 59.2%로서 높은 여성비율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을 쉽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립금속·기계(38산업)의 경우에는 전직도 높게 나타나지만 실업도 1.20으로서 전체 제조업 중 가장 높다. 그런 데 비하여 사업체수는 조립금속·기계산업의 전반적 경기호황에 의하여 2.6% 정도 증가하여 섬유·의복과는 달리 사업체수의 감소가 전직 또는 실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견 아닌 듯 보인다. 그러나 조립금속·기계(38산업) 중에서 전기기계(383산업)와 조립금속(381)산업에서는 사업체 증가율이 -29.3% 및 -1.7%를 보여 전직 및 실업은 이 두 가지 세분류산업에서의 사업체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전기기계 및 조립금속의 경우 그동안의 임금상승 및 국제경쟁의 격화 그리고 기술수준의 진보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제는 자동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기술집약적 생산체제로 개편되어짐에 따라 사업체 자체가 새로운 기술집약형 사업체로 대체되거나 같은 사업체내에서도 자동화에 따른 단순노무직에 대한 노동수요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직 및 실업이 높다고 보여진다. 사업체 방문조사 결과로도 위의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조립금속·기계산업 중 사업체수가 감소한 전기기계(383)와 조립금속업종(381)은 여성비율이 각각 48.1% 및 81%로서 역시 여성비율이 높으면 전직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한다. 조립금속·기계(38)산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도 전직보다 실업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조립금속산업에서의 임금수준이 제조업 평균임금이나 섬유·의복산업에 비하여 높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는 비슷한 수준이므로 사회적 인식과 임금, 근로조건 등을 고려한 유예임금(reservation wage) 현상이 작용하여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고 있는 현상이 섬유산업보다는 강하기 때문이라 하겠다.¹⁾ 그런데 여성의 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은 음식료와 기

1) 1992년도 임금총액; 섬유·의복 60.6만원, 목재가구 74.6만원, 화학 87.8만원, 조립금속·기계 85.5만원, 비금속 88.7만원, 1차금속 109.6만원, 기타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8.4만원, 건설업 102.0만원, 제조업전체 79.9만원.

타제조업으로부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은 낮다. 이는 전직이 주로 사업체수의 감소가 높은 산업에서 일어나는 구조조정상의 원인이 큼을 입증한다. 만약 3D기피 현상이 강하다면 여성비율이 높고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의 전직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립금속제품·기계산업에서 실업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세분류산업에서의 사업체수 감소 때문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기업에서 감량경영 및 이에 따른 실업이 여타산업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대규모 기업으로부터의 실업자는 중소기업 실업자에 비하여 기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유예임금 현상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조립금속·기계 다음으로 실업자를 배출하는 확률이 높은 산업은 화학·석유인데 역시 사업체수의 감소와 그 산업의 노동력특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화학·석유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대규모 기업이 많고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직보다는 실업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종측면에서도 건설업 등으로 진출하기 적합한 단순노무직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수준을 가진 기능자이므로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직업정보를 통하여 전직하려는 대기실업자가 많다고 하겠다. 정리하여 보면, 사업체수가 감소한 산업 중 여성근로자나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고 기대임금이나 근로조건이 그다지 높지 않은 특성을 가진 산업에서는 전직의 확률이 높고, 임금수준, 남성근로자 비중 및 어느 정도 기술수준을 가진 기능

<표 11> 사업체수 변화추이

(단위 : 명, %)

	1990	1991	1992	증가율 평균
31. 음식료품	3,044	3,194(4.9)	3,081(-3.5)	0.7
32. 섬유·의복·가죽(신발)	15,613	15,509(-0.7)	14,120(-9.0)	-4.9
33. (나무·가구)목재·가구제품	2,823	2,962(4.9)	3,173(7.1)	6.0
34. 종이·인쇄·출판	5,453	6,326(16.0)	5,220(-17.5)	-0.8
35. 화학물·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7,570	7,502(-0.9)	7,237(-3.5)	-2.2
36. (도기·자기·유리)비금속	2,771	3,015(8.8)	3,491(15.8)	12.3
37. 제1차금속(철강·비철금속)	900	899(-0.1)	1,244(38.4)	19.2
38. 381 조립금속	7,458	7,863(5.4)	7,178(-8.7)	-1.7
382 기계	7,711	8,661(12.3)	9,891(14.2)	13.3
383 전기기계	6,311	6,496(2.9)	2,504(-61.5)	-29.3
384 운수장비	2,047	2,178(6.4)	2,466(13.2)	9.8
385 정밀기계	888	845(-4.8)	3,588(324.6)	159.9
계	24,415	26,043(6.7)	25,627(-1.6)	2.6
39. 기 타	2,573	2,578(0.2)	3,250(26.1)	13.2
총 계	65,162	68,028(4.4)	66,443(2.3)	3.4

주 : 1992년도의 산업은 신분류이므로 비교를 위해 구분류로 조정했음.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전직이 어려워 실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된다.

목재·가구산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으로의 전직확률이 여타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목재·가구에 종사하는 노동력특성이 남성비중이 높고 단순노무직종이 높으므로 노동력 부족과 건설특수로 임금수준이 갑자기 상승한 건설업으로의 전직이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목재가구산업의 사업체수가 감소하지 않은데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이 표에서와 같이 1.0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목재가구산업의 노동이동확률이 여타산업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²⁾

고용구조조사(1992년) 통계상의 전직과 실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前職 제조업 근로자의 轉職 및 失業 분해를 통해 볼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轉職 및 失業은 주로 사업체수의 증감, 즉 경기 호·불황에 따른다. 또한 전직이나 실업이나의 구분은 여성근로자비율이 좌우한다. 즉 여성근로자비율이 높은 산업에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이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비율이 낮은 산업에서는 사업체감소가 실업자 증가로 나타난다. 전직의 경우 사업체수의 감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부수적으로 임금수준도 강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금수준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수준보다 낮은 산업에서의 전직은 쉽게 일어나는 데 반하여 조금 낮거나 높은 산업에서의 전직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제조업으로부터 전통적 서비스·유흥향락산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은 도산 및 쇠퇴 경향에 있는 섬유·의복산업(32산업)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대규모 자동화 투자 및 기술변화가 나타나는 조립금속·기계산업(38산업)에서 높다. 그리고 실업도 위의 두 가지 산업 및 사업체수가 감소한 화학·석유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은 노동관련 학자들이나 일반적 노동관계자들이 통상적으로 주장해 오던 근로자들의 3D기피 현상-작업환경 열악(Dirty), 힘든 노동(Difficulty), 위험한 작업(Dangerous)-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제조업에서 전통적 유흥향락산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전직하고 있다고 하는 일반적 통설이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실직 및 전직의 빈도가 높은 산업이 일반적으로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종이·인쇄·출판, 화학 또는 철강산업을 포함한 제1차금속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도산 및 자동화 등 산업구조변화가 급격하다고 보이는 섬유·의복, 조립금속·기계산업에서 높게 나타난다. 즉 실직 및 전직의 원인이 3D기피라기보다는 도산 및 자동화·기술화 등 산업구조 개편과 임금수준의 차이에 따른 노동이동에 의한 현상이 더 크며 유흥음식업으로의 전직은 구조조정

2) 노동이동자료인 이직률을 보면 '86, '88, '90년의 목재·가구산업과 제조업 전체가 각각 4.2 대 4.3, 4.4 대 5.2, 3.98 대 4.11로서 목재·가구산업의 노동이동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현상이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전직이 아니다. 1992년 고용구조조사에서 나타난 실업의 이유는 '폐업·해고', '일거리가 없어서' 등의 산업구조 조정상의 원인이 크며, 전직이유에서도 3D기피 문항인 '작업시간·환경이 좋지 않아서' 보다는 이들 산업구조 조정상의 이유에 더 높은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제Ⅲ장에서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직업 및 인력부족의 이유로서 '취업기회 부족', '정보를 몰라서'에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작업환경 열악' 등 3D부문에는 응답비율이 낮다. 한편 실업자 중 직업훈련을 이수받지 않은 자가 90%라는 사실은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직업정보 및 성장업종으로의 직업훈련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에 관한 자료는 다음의 실업분석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전직의 원인이 3D기피보다는 산업구조 조정상의 이유가 크다고 결론지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력 공급애로 요인 중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인력재배치를 위한 전직훈련과 직업정보 알선, 신규인력에 대한 직업훈련이 중요한 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의 인력재배치를 위한 전직훈련 및 신규인력에 대한 훈련시스템 확립과 직업정보 알선이 중요하며 또한 이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

3. 失業者 分解

가. 청소년층의 실업

우리나라의 실업자 분해를 통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청소년층의 실업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아래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93년 말 현재 실업률이 2.8%로서 비록 1990년도에 비하여 불황하에 있고 실업률이 높다고는 하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비하면 실업률이 1.0~2.4%포인트 낮게 기록되고 있어 실업률 수준 자체는 높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청소년층을 살펴보면, 15~19세의 경우에는 1992년에 10.2%의 실업률을 나타내어 1990년도에 비하여 전체실업률은 같은 수준인 데 반하여 1%포인트 가량 더 높아졌고, 마찬가지로의 현상이 20~24세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층에서의 실업현상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대책이 요구된다.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표 13 참조), 미국은 15~24세 연령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일본의 전체실업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15~24세에서의 실업률은 우리보다는 상당히 낮은 4~7% 정도에 불과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15~24세 계층의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과는 차이가 없다.

<표 12> 연령계층별 실업률

(단위 : %)

	1980	1986	1990	1992
전 체	5.2	3.8	2.4	2.4
15~19세	13.2	9.6	9.1	10.2
20~24세	10.3	8.8	6.3	7.0
25~29세	5.8	5.5	3.9	4.0
30~59세	3.1	2.3	1.3	1.2
60세이상	0.6	0.3	0.4	0.3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13> 각국의 성별·연령계층별 실업자수(실업률)

(단위 : 천명, %)

	한 국	미 국	독 일	일 본
15~19(남자)	29 (11.9)	709 (19.8)	41 (5.2)	70 (7.2)
20~24(남자)	69 (9.9)	849 (11.7)	104 (4.9)	140 (4.0)
25~29(남자)	85 (4.9)	697 (7.5)	128 (5.3)	80 (2.0)
전체(남자)	303 (2.6)	4,817(6.9)	943 (5.1)	780 (2.0)
전체(여자)	161 (2.1)	3,609(6.3)	1,028 (8.0)	590 (2.2)

주 : 한국은 1992년, 일본·미국은 1991년, 독일은 1990년 자료임.

자료 : 이주호, 『청년층 고용문제의 교육·노동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3에서 일부 발췌.

<표 14> 연령계층·학력별 실업자수

(단위: 천명)

	전 체	15~24세	25~29세	30~54세	55세 이상
중졸 이하	112	24	12	64	12
고 졸	257	131	47	75	4
초·전문대졸	41	19	13	9	0
대졸 이상	74	17	34	22	1
전 체	484	191	106	171	17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93.

이제 청소년층의 실업률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자. <표 14>에서 연령·학력별 실업률을 보면 가장 현저히 나타나는 것은 15~24세 연령층에서 대졸 이상의 실업률이 11.7%로서 고학력자의 공급초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졸 및 중졸의 경우에도 9% 정도로 전문대졸의 7.4%보다 높게 나타난다.

나. 중·고졸 학력자 실업심각

실업자수에 있어서 심각한 부류는 대졸보다는 중·고졸이다. 1992년도 고용구조통계조사를 보면 15~24세 연령층 중 고졸·중졸 학력이 15만명, 25~29세에서도 6만명 정도인 도합 21만명인 데 비하여 대졸 실업자수는 29세 이하 5만명으로 동일한 연령층의 대졸 실업

<표 15> 전직 유무별·연령계층별 실업자수

(단위 : 1,000명, %)

	전 체	15~24세	25~29세	30~54세	55세 이상
총 수	484	191	107	169	17
전직有	55.6	34.0	53.3	78.9	82.4
신 규	44.4	66.0	46.7	21.1	17.6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조사보고서』, 1993.

<표 16> 교육정도별·산업별 전직 실업자(1992년)

(단위 : 1,000명)

	전체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총 수	270	6	105	87	125	25	51	23
중졸이하	794	3	32	30	40	13	15	6
고 졸	141	2	55	46	66	11	29	12
초·전문대졸	19	0	8	5	8	1	4	2
대졸이상	30	0	10	7	11	1	4	3
가구주와의 관계별								
가 구 주	145	4	54	39	72	19	27	13
기타 가구원	125	2	51	48	53	7	24	10
희망취업 형태별								
비임금 근로자	62	2	21	21	39	6	22	11
자 영 자	56	1	19	19	36	6	20	10
기 타	5	0	2	2	3	0	2	1
임금근로자	208 ¹⁾	4	81	81	120	31	45	44
상 근 제	302 ²⁾	1	12	12	16	4	7	5
시 간 제	178 ³⁾	3	69	69	104	21	38	39

주 : 1) 희망취업형태 중 임금근로자의 남자 총수는 149,000명,

2) 상근제를 희망한 남자 총수는 15,000명,

3) 시간제를 희망한 남자 총수는 135,000명임.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93.

자수 5만명을 절대적 숫자상에서는 4배를 넘어서는 심각한 실업문제가 고졸 이하에서 보인다. 고졸 이하 청소년층의 실업률을 선진외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10%선인 데 비하여 일본과 독일은 5%선으로 우리나라가 높다(표 14 참조). 이들 실업자의 직업정보·직업훈련 여하에 따라 생산직 인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표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장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실업상태가 높게 나타난다. 연령이 젊은 근로자인 15~24세에서 34%, 25~29세 53.3%라는 사실은 직업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 큼을 보여준다. 즉 직업정보 부족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불만족으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시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보자.

<표 16>에서 교육정도별·산업별 전직 실업자수를 보면, 실업자가 가장 많은 집단은 중졸 및 고졸의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실업자들이며,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의 실업자군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가구주 여부를 보면 가구주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실업자가 80%나 되기 때문에, 직업안정망 확충 등 인력수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인력난 속에서의 실업현상은 상당히 메워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근무형태 조사에서는 85%가 시간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트타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여건정비가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함을 보여준다. 한편 <표 17>에서는 서비스근로자 및 시장·상점 근로자이었던 실업자가 5만명, 기능근로자가 5만 1천명, 장차·기계조작 및 조립원이 5만 6천명, 단순노무직 2만 8천명 등 생산직 및 음식숙박 등 전통적 서비스직 등에서의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6>과 <표 17>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립원, 단순노무직, 시장·상점 근로자 등 단순노무생산직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능 근로자 그리고 전통적 서비스산업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실업자 중 가구주가 50% 이상이고 임금근로자 희망이 85%라는 사실은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취업이 시급하나 노동수요측을 쉽게 찾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이들 전직 실업자그룹은 산업사회가 기술화·고도화됨에 따른 일정한 전문적 기술의 미비에 따라 산업예비군화되고 있는 직종에 있는 실업군으로 추정되며, 직업안정망의 확충과 직업훈련 내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훈련이 필요하다. 1989년의 경우에도 실업군의 특색은 1992년도의 분석과 비슷한 양상이지만 1989년보다 3년후인 1992년에는 경기후퇴와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급속함으로 인하여 실업자의 수와 직종, 기능 정도, 기타 상황이 좀더 어려운 상황이다(참고표 2, 3).

다. 규모별 실업 - 제조업은 대규모에서

다음으로 제조업에서 빠져나간 실업자를 산업별·규모별로 살펴봄으로써 실업이 나타나

<표 17> 전산업 전직업별 前職 실업자(1992년)

(단위 : 1,000명)

	전 체	농·수렵 ·임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	사회 및 개 인서비스업	
총 수	270	6	105	102	159	37	67	55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7	0	4	3	3	1	2	1
전문가	6	0	1	1	5	0	0	5
기술공 및 준전문가	30	0	11	11	18	1	5	12
사무직원	37	0	15	15	22	3	7	12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 장판매근로자	50	0	1	1	49	0	43	6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4	4	0	0	0	0	0	0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51	0	31	31	20	15	4	2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56	0	38	38	17	2	3	12
단순노무직 근로자	28	1	5	5	23	13	5	6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93.

<표 18> 前職有 실업자 산업별·규모별 분해

(단위 : %)

	전 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농·광·기타서비스업
총 규모	270,000명 (100)	102,000명 (37.8)	37,000명 (13.7)	67,000명 (24.8)	64,000명 (23.7)
중소규모	82.0	72.6	90.0	93.0	80.2
대규모	18.0	27.4 ¹⁾	10.0	7.0	9.8

주 : 대규모 기업 중 제조업에 있던 실업자비율은 74%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93 및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 테이프.

는 부류를 정확히 하자. 1992년도의 고용구조통계조사를 전산처리한 통계자료를 <표 18>에서 살펴보면, 표본에 의하여 배율추정된 실제의 前職 실업자수는 27만명 정도로서 제조업에서 10만 2천명, 건설업에서 3만 7천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6만 7천명, 농·광·기타서비스산업이 6만 4천명으로 나타나 제조업이 37.8%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2.2%로서 중소기업에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에는 대규모에서 실업자 발생이 27%나 차지하여 여타산업에 비하여 대규모 제조업에서의 실업현상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전체 대규모 사

<표 19> 전직이 제조업이었던 실업자의 규모별 비율

(단위 : 명, %)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가구	종이인쇄	화학석유	비금속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기 타
전체(100) (102,000명) 100	5.8	23.8	1.5	6.0	8.9	4.4	3.0	41.6	5.0
중소규모(100) 72.6	5.3	25.1	1.9	7.1	8.0	4.6	2.2	40.0	5.9
대규모(100) 27.4	7.0	20.3	0.3	3.1	11.3	3.9	5.1	46.0	2.7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 테이블.

업장 중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의 실업자 비율은 74%이다. 고용구조통계조사 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규모별 실업자 발생의 원인을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경기부진 및 도산의 영향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뿐만 아니라 임금수준 또는 근로조건 열악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등의 원인이 크다고 보여지나,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구조조정이나 자동화·기계화의 영향으로 인한 감량경영으로 인한 해고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난다.

규모별로 볼 때는 대량실업이 나타난 조립금속·기계, 장비제조업, 섬유·의복 및 화학·석유산업의 경우 대규모에서의 실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역시 대규모에서의 도산 및 감원이 크게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표 19 참조). 한편 종이·종이제품 및 출판, 화학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의 제조업에서는 여성 실업자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며 특히 대규모 기업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종이 및 출판산업에서는 불경기의 영향이라 그 원인이 추정되나 화학 및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의 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자동화가 여성근로자 감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직업정보 및 직업훈련부족이 실업의 원인

한편 <표 20>에서 취업난의 이유를 학력별로 보면 '취업기회가 없어서', '정보를 몰라서'가 합해서 33.8%로 나타나므로 취업의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직업정보 부족이라고 하겠다. <표 21>에서 실업자를 신규와 전직으로 구분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신규실업자는 취업을 못하는 이유에서 '취업기회 및 정보를 몰라서'가 45%로서 전직 실업자의 35%보다 10%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실업중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희망임금수준은 50만~70만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인 10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표 20> 취업난 이유

(단위 : %)

	총 수	중졸이하	고 졸	초·전문대졸	대졸이상
· 취업기회가 없어서	26.3	24.8	24.8	26.8	33.3
· 취업정보를 몰라서	7.5	7.1	8.9	7.3	4.0
·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	14.5	20.4	14.7	14.6	5.3
· 남녀차별 때문에	0.4	0.0	0.4	0.0	1.3
· 보수가 낮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27.3	26.5	28.3	26.8	25.3
·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서	16.1	13.3	16.3	17.1	20.0
· 기 타	7.9	8.0	6.6	7.3	10.7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 '보수가 낮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설문문항을 3D와 관련한 설문으로 보기 위하여는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와 '보수가 낮거나 소속이 적어서'의 2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보수가 낮아서 이동한 것은 3D기피라고 볼 수 없는 임금의 자동조절작용이다. 3D기피를 보려면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라고 나누어진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표 23>에는 나누어진 설문이 있으므로 참조 바람).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93.

<표 21> 취업을 못하고 있는 이유

(단위 : %)

		이 유	전 직	신 규
취업을 못하는 이유		취업기회가 없어서	27.98	37.02
		취업정보를 몰라서	7.97	8.08
		자격 또는 학력이 맞지 않아서	11.87	19.14
		남녀차별 때문에	0.38	0.71
		보수가 낮거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아서	35.11	25.35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서	8.14	2.68
		기 타	8.56	7.02
		계	100.00	100.00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임금희망수준		10~20만원 미만	0.29	0.39
		20~30만원 미만	30.15	40.14
		30~50만원 미만	29.07	36.47
		50~70만원 미만	40.06	45.00
		70~100만원 미만	23.70	12.67
		100~200만원 미만	3.65	1.33
		200만원 이상	0.08	0.00
		계	100.00	100.00
직업훈련유무		유	15.27	7.60
		무	84.73	92.40
		계	100.00	100.00

자료 : 통계청, 『1992년 고용구조통계조사』, 테이프.

<표 22> 실업자의 직업훈련 이수 여부

(단위 : %)

	총 수	중졸 이하	고 졸	초·전문대졸	대졸 이상
받았음	10.1	9.9	11.3	10.0	8.0
- 사설학원에서	5.6	4.5	7.0	5.0	2.7
- 공공직업기관에서	2.3	2.7	1.9	2.5	2.7
- 사업체부설기관에서	1.8	1.8	2.3	2.7	2.7
받지 않았음	89.9	91.0	88.7	90.0	92.0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93.

<표 23> 실업동기

(단위 : %)

	총 수	15~24세	25~29세	30~54세	55세이상
전직자					
· 폐업·해고	11.5	7.7	8.6	14.3	23.1
·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14.5	18.5	15.5	13.5	7.7
· 일이 임시적·장래성이 없어서	11.2	15.4	13.8	7.5	0.0
· 적성·지식·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9.7	13.8	15.5	6.8	0.0
· 작업시간·환경이 좋지 않아서	8.9	10.8	10.3	8.3	7.7
· 일거리가 없어서	8.6	1.5	3.4	12.0	15.4
· 자기·가족사업·가정사정으로	25.7	21.5	24.1	29.3	23.1
· 비인격적인 대우 등 회사사정으로	3.0	4.6	3.4	3.0	0.0
· 기타	7.1	9.2	5.2	5.3	23.1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93.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도 입직하려는 것은 실업중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경력 및 연령층이 낮은 부류임을 입증한다.

또한 <표 22>의 직업훈련 이수 여부를 보면 실업자의 90% 정도가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 여부도 실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비록 공고 및 전문대 졸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직업훈련을 취업후에 사내직업훈련이나 근무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지만, <표 22>에서 나타난 바로는 고졸 및 전문대졸의 실업경우에도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중졸 이하나 대졸 이상의 실업자와 마찬가지로의 90%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고졸 중 인문계 졸업자, 초대 및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도 인문계 졸업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즉 중졸 신규근로자에 대하여는 공공의 직업훈련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연령이 높은 층에 대하여는 공공의 전직훈련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졸 및 전문대의 경우에는 인문계 졸업자의 비율을 줄이고, 대학에서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한편 전직실업자의 실업동기를 살펴보면, <표 2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항간에 알려진 3D현상으로 인한 실업이 그리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1992년도 고용구조통계조사상에 나타난 바로는 실업동기가 3D항목인 '적성·지식·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9.7%), '작업시간·환경이 좋지 않아서'(8.9%)보다는 '폐업·해고'(11.5%), '일거리가 없어서'(8.6%), '자기·가족사업·개인적 사정으로'(25.7%),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14.5%) 등 사용자측 사정이나 산업구조조정, 임금수준 등에 대한 불만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勞動供給 安定化 方案

앞에서 이야기한 노동력부족 현황, 고용구조의 특색, 특히 제조업에서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의 전직자 및 제조업에서의 실업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노동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업구조변화와 산업·업종간의 상이점으로 인한 사업체의 수요 및 근로자의 공급상의 수급불일치가 노동력 수급애로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부문을 해결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과제로 배려되어야 한다. 즉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사양화되는 기술 및 단순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내실화와 업종간의 상이한 근로자수요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좀더 구체적 직장알선과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직업안정망에 대한 투자가 매우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 예산의 GDP에 대한 비율은 0.043%(1992년)인 데 비해 일본 0.5%(1985년), 미국 0.71%(1976년)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공공직업안정망을 통한 취업은 1.5% 정도이지만 일본과 스웨덴은 각각 32%, 영국 70%, 스웨덴은 90% 이상의 근로자가 공공직업안정망으로 취업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취업자가 대부분 연고 및 친지 소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보가 지역사회에 머물 때에는 매우 유리하고 직장정착률도 높은 방법이지만 현재와 같은 고도화 정보사회 시점에서 전국으로 근로자를 찾고 있을 때에는 '연고·지인'보다는 '공공직업안정망'이 비용이나 효율면에서 훨씬 나은 방안이다.

둘째, 청소년 실업층의 활용과 이들에 대한 공공부문 양성훈련은 계속 중점적으로 정책배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층이 전체 실업자의 40%를 차지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고졸 이하이다. 대학 졸업자의 실업이 문제가 되기는 하나 실업이 심각한 부류는 고졸 이하이며 생산직 인력으로서의 취업가능한 고졸 이하 실업자가 21만명인데,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90%) 있다. 이들에 대한 생산직 유도를 위하여는 학교교육상의 공고 위주로의 교육제도 개혁이나 공공직업훈련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수익자부담 측면에서의 양성훈련은 민간부문에서 실시하도록 직업훈련 방향을 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청소년층 실업자를 감안할 때 양성훈련에 대한 정부개입은 아직 절실히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직업훈련을 민간부문에 맡기는 정책을 주로 펼쳤으나 1980년 이후 산업구조변화가 급속히 일어나는 것을 계기로 정부에서의 공공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하여 학교교육상의 2+1제도상의 문제점 보완사항을 지적한다면, 학생들의 마지막 1년간 사업장 취업이 사업장 시설미비로 인하여 직업훈련기본법상의 직업훈련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3분의 1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1년간의 사업장 근로가 무보상 강제근로가 되지 않고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여성 주부인력의 활용문제이다.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는 166만명인데 이 중 130만명이 고졸 이하이며 대부분 주부계층이다. 여성 주부인력의 활용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부 130만명의 70%가 파트타임을 원하고 있는 만큼 파트타임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업체 출장조사에 의하면 주부인력의 활용이 차츰 높아지고 있고 공단지역 및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업종에서는 파트타임 주부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문제로 어려움이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주휴일,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적용, 취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 중 장제비, 일시보상, 유족보상 등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고, 유급생리휴가, 산전·산후 유급보호휴가, 육아시간 등에 대하여는 정규근로자와 같이 적용하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기관의 사회적 입학 및 경력개발·전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미래의 고도기술 및 아이디어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유동적 인재의 흡입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과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과 대학이 근로자의 기능형성에 새로운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생의 운명 결정이 일류대학 입학과 함께 18세에 평가가 끝나는 사회보다는 전문대학 및 대학, 나아가서 대학원에 사회인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졸업자격 시험을 통해 거르는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대학에는 여성(주부) 및 근로자의 입학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전문대학이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은 기술·기능 위주의 교육제도여야 원래 설립취지에 맞으나 현재는 대학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의 기능교육시간을 비교하면 전문대학이 기능시간보다는 교양시간의 비중이 매우 높아 기능교육위주로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능대학은 4년 동안 3,200시간 중 교양이 5%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전문대학은 1,700시간 중 교양이 20~30%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범위는 노동력부족이 심한 업종에 한하여 산업연수 명목으로, 기간 또한 한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력부족의 원인이 노동력 절대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직업정보 또는 직업훈련부족으로 나타나고 특히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수급불일치가 근년에 들어 격심해진 것이 확실한 만큼 장기적으로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 인력수입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이 절대적 수준에서 여타산업에 비하여 낮은 사양산업에 대하여만 외국인 인력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되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한계산업은 도태하거나 자동화로 재육성되는 노동 및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자의 중소기업 사업체의 노무담당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력 활용 여부에 대하여는 절반 이상(54%)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임금격차 축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낮음 등의 경제적 요인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회적 융화문제 등 경제외적 요인을 들고 있다.

參 考 文 獻

- Eck, Alan Education and Training, Earnings, and Jobs : An Analysis of the Data, Bureau of Labor Statistics, 1993.
- Rosen, Howard *Comparative Labor Market Policies of Japan, West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Australia*,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Council on Employment Policy, April 25, 1985.
- ILO,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1989, 1992.
- MLR, "Education and the Work Histories of Young Adults," April 1993, pp.11~20.
- Seitchik Adam and Jeffrey Zornitsky, "From One Job To The Next : Worker Adjustment In A Changing Labor Market,"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89.
- 關 滿博·鵜飼信一, 『人手不足と中小企業』, 新評論, 1992.
- 大澤眞知子, 『經濟變化と女子勞動』, 日米の比較研究, 1993.
- 行政院 主計處 編印(대만), 『人力資源調査統計年譜』, 1991.
- 雇用振興協會 編(일본), 『中高龄對策事例集』, 1988.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70, 1980, 1986, 1989, 1990, 1992.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82, 1987, 1990, 1992.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82, 1987, 1990, 1992.
 _____, 『고용전망조사보고서』, 1982, 1987, 1990, 1992, 199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제조업 기술실태조사보고서』, 1988, 1989, 1990, 1991, 1993.
 통계청, 『'92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6, 1989, 1993
 _____, 『'92 고용구조통계조사 테이프』.
 _____, 『한국사회지표』, 1970, 1975, 1980, 1985, 1990.
 _____, 『장래인구추계(1990~2021년)』, 1991.

<참고표 1> 前職 제조업근로자의 轉職·失業 비율(중분류산업별 근로자수 scale 감안하지 않은 경우)

(단위 : %)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 가구	종이 인쇄	화학 석유	비금속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기 타
전직 100 (77,000명)	8.2	28.7	2.0	4.7	7.3	3.9	2.5	35.7	6.4
실업 100 (102,000명)	5.8	23.8	1.5	6.0	8.9	4.4	3.0	41.6	5.0
각산업 100 근로자비율	9.2	25.8	2.0	6.1	7.5	4.5	3.1	34.6	7.2

주 : 숫자는 제조업 중분류에서의 각 산업에 속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전체에 대한 % 비율을 나타냄. 즉 섬유·의복의 전직 비율 28.7%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전직한 제조업 전체 근로자수(77천명) 중 섬유·의복에서 빠져나온 근로자 비율임. 실업, 각 산업별 근로자 비율도 마찬가지임.

자료 : 통계청, 『1992 고용구조통계』 테이프 및 『고용구조통계조사』, 1989, 1993년.

<참고표 2> 교육정도별·산업별 前職 실업자(1989년)

(단위 : 1,000명)

	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총 수	219	5	89	87	125	25	51	23
고졸이하	74	2	31	30	40	13	15	6
고 졸	115	3	46	46	66	11	29	12
초·전문대졸	13	0	5	5	8	1	4	2
대졸이상	17	0	7	7	11	1	4	3
가구주와의 관계별								
가 구 주	115	3	39	39	72	19	27	13
기타 가구원	104	2	48	48	53	7	24	10
희망취업 형태별								
비임금근로자	39	1	11	11	27	4	15	5
임금근로자	181	5	76	76	98	21	36	19
시 간 제	10	0	3	3	7	1	2	2
상 근 제	171	5	73	73	91	20	34	17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9.

<참고표 3> 전산업 전직업별 前職 실업자(1989년)

(단위 : 1,000명)

	계	농·수렵·임·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전문·행정·사무관련직	52	0	22	21	30	4	7	11
판매종사자	36	-	3	3	33	-	30	0
서비스직	23	-	2	2	21	1	11	7
농림수산업직	5	5	-	-	-	-	-	-
생산·운수·단순노무직	104	0	63	61	41	21	3	5

자료 : 통계청, 『고용구조통계조사보고서』, 1989.